

경상북도 중소도시 제조업 특성과 변화

채승희(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학과)

I. 서론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발전에 집중하여 안산, 창원, 여천, 포항 등의 공업도시가 경제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와 국가산업단지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공업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의 중소도시 경제는 대체로 정체·침체되어 있다.(박양호, 1998) 이에 따라 공업이 발달한 특정 지역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하여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경상북도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부족이다. 특히 특화된 제조업은 특정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발전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지역 내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지역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도 중소도시의 성장정체·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신의철 외, 2004) 예외적으로 포항과 구미의 경우는 철강산업과 전자산업의 특화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중소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중소도시의 성장과 관련한 도시 규모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구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적 차원에서 산업 구성과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는 이미지의 경상북도 중소도시에서의 산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의 연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 시도된다. 첫 번째, 경상북도 중소도시 중 인구 5만 명에서 30만 명의 중소도시¹⁾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 중소도시 제조업의 주요특성을 전국과 대도시와의 관계로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중소도시 간 제조업 특성과 성격을 규명하며, 특히 중소도시 지역별, 즉 경상북도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제조업의 변화에 관한 성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인구 3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구정체감소, 고령화, 재정빈약, 중심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도시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됨
출처) 건설교통부, 2007, 중소도시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p.135

1. 중소도시의 의미

중소도시란 다양한 도시규모 중 중간적 규모나 소규모의 도시(하성규·김재익, 1995)로서 중도시와 소도시 모두를 지칭하는 합성어로 기본적으로 크기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 외국의 경우 중소도시를 small city, small-median city, medium city, small-intermediate city 등으로 부른다. 중소도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인구의 규모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각 국가에 따라 중소도시를 정의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론디넬리(D.A Rondinelli)는 중소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위도시(secondary cities)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그 개념의 범위는 나라마다의 특성, 즉, 도시의 정주체계, 발전의 정도, 경제구조에 따라 상이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볼 때 도시의 인구규모가 가장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학자들은 인구 규모에 의한 도시의 계층적 분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이양재,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를 중소도시로 정의하며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지역을 중소도시라 지칭한다. 현재 법률상 중소도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로 지정한 것이 유일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분류체계 및 중소도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건설교통부, 2007)

중소도시란 각 도시에 맞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론디넬리(D.A Rondinelli)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소도시의 역할 및 잠재적 기능으로 ① 공공·사회서비스 기능, ② 상업 및 대인서비스 기능, ③ 지역시장 및 교역기능, ④ 농산물 가공 및 공급기능, ⑤ 소규모업체의 육성, ⑥ 지역교통 및 통신중심기능, ⑦ 이촌인구의 흡수 및 농외소득 창출, ⑧ 사회변동의 기지역할의 기능을 제시(임창호, 1988)하였고, 마더(Om Prakash Mathur)는 중소도시의 역할로서 ① 중주도시화의 억제, ② 분산을 통한 대도시권 성장·촉진, ③ 농촌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에의 접근성 제고, ④ 도·농간의 연계성 강화, ⑤ 인구분산을 통한 국가의 공간적 통합촉진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양재(2007)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① 경제의 활성화, ② 생활환경의 개선, ③ 새로운 공간질서의 확립, ④ 성숙사회로의 진전으로 정의하였다.

건설교통부(2007)에서는 중소도시를 도농연계공간이자 대도시 성장 동력의 지속가능한 통로이며 지방에서 기초성장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하는 국토공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중소도시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관련 연구는 대도시지역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특성은 크게 중소도시의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의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3가지 연구 경향을 보이는 지금까지의 중소도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사례 도시에 의한 접근보다는 유형의 분류에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개개 도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편이다. 이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의 인구 및 산업과 제조업의 변화를 논의할 것이다.

Ⅲ.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특성

경상북도의 도시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로 이루어져있다. 1995년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시가 인접 군과 통합되어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30만 명 이상인 포항시와 구미시를 제외¹⁾한 나머지 8개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인구

경상북도 전체인구는 1970년 4,555,866명에서 2005년 현재 2,594,719명으로 약 45%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1980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에는, 4,954,559명으로 영남 지역 내에서 가장 인구비중이 높았으나, 대구시의 분리로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북지역에서 감소하고, 또한 이촌향도로 인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이 원인으로 영남 전체에서 차지하던 비중도 현격히 줄어 2004년 20.6%를 차지하고 있다.(이상울, 2005)

지난 3-40년 동안 대도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들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경상북도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의 각 중소도시별 인구변화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경주시와 영주시는 198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는 1970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산시는 198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 1981년 고산읍과 안심읍이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후 1990년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구가 다른 중소도시와 달리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Ⅲ-1> 1970년~2005년 경상북도 중소도시 인구

단위) 명

행정구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경주시	280,106	288,754	267,430	275,132	266,131
김천시	191,573	177,939	151,995	147,855	135,932
안동시	251,250	237,558	197,228	182,098	169,788
영천시	186,523	157,859	120,565	111,392	104,012
영주시	115,038	163,397	140,889	126,507	114,081
상주시	230,120	191,716	148,200	116,493	105,937
문경시	155,380	147,242	119,416	90,846	70,926
경산시	163,064	190,748	145,053	226,713	240,371

출처)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주) 1970년, 1980년, 1990년 자료는 도농통합 이전 시부와 군부의 자료를 합한 것이며, 2000년, 2005년 자료는 도농통합이후의 원자료임

1) 대도시와 중도시의 하위개념인 5만 명~30만 명 인구규모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연구원의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신정철 외, 2004)의 범위를 이용하여 인구 30만 명 이상인 포항시와 구미시를 제외하였다.

경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문경의 경우, 과거 광산업의 발달로 인구유입의 증가가 컸으나, 광산업의 쇠퇴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감소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행정구역개편이후 과거 군부지역의 농촌인구가 타 도시로 유입이 인구감소의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경시는 현재까지도 농업중심의 산업이 도시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 청·장년층은 구직활동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주로 중소도시에 남아있는 연령대는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든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인구감소현상은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젊은 연령의 경제활동인구로, 목적지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높아지나, 기원지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경제적 측면의 영향으로 보면 목적지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을 증가시키고 기원지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이희연, 2005)

2.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상북도 중소도시 전산업의 사업체 증감율은 19.2%이고, 종사자수는 13.5% 증가하였다. 이 중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종사자수는 62.2%, 사업체수는 58.6% 증가하였다. 이는 경북 중소도시의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의 증대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종사자수는 58.6%, 사업체수는 37.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도시 총합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5.3% 종사자수가 증가하였고, 27.2%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북도 중소도시들의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따라 위 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된다.

경상북도 중소도시 산업에서 감소율이 높은 산업은 광업으로 전국, 대도시총합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경시를 중심으로 하였던 무연탄광의 폐광으로 종사자수는 225.0%, 사업체수는 99.2%가 감소하였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종사자수는 17.1%, 사업체수는 40.0%로 감소하였는데, 1995년 도농통합이후 지방관공서의 통폐합으로 사업체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종사자수가 원인으로 예상된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는 10.9%, 사업체는 2.3% 감소하였는데, 지역 내 제2금융권의 도산과 IMF이후 대규모 은행의 통·폐합으로 종사자수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3.9% 종사자수의 증가와 12.3%의 사업체수 증가가 나타나며, 특히 중소도시의 소규모사업장의 증가로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의 증가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전국과 대도시, 그리고 경상북도 중소도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광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업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농업 및 임업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7)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의 특성으로는 전국 및 대도시 총합과는 달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감소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산업의 비중

은 증가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성의 한 표출이라 보인다. 또한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국적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이 나타나나, 경상북도 중소도시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각 시별 산업특성

경상북도의 산업종사자수는 1994년 690,436명, 2006년 815,419명으로 18.1% 증가하였다. 사업체수는 1994년 143,171개, 2006년 180,991개로 26.41% 증가하였다. 1994년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종사자수는 290,830명으로 경상북도 전체 산업종사자수의 4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67,047개로 46.8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종사자수는 320,482명으로 경상북도 전체 산업종사자수의 4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83,086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46.7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종사자수는 336,069명으로 경상북도 전체 산업종사자수의 4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82,996개로 45.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은 경상북도 전체 산업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4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2.2 각 시별 산업변화

경상북도 8개 중소도시의 산업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주시와 문경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도시에서는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모든 도시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광업의 경우 모든 도시에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시장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으로서 경기상황에 따라 증감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경상북도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4개 도시 중 상주시와 문경시의 큰 폭의 인구 감소와 산업침체로 전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감소와 산업기반의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상북도 중소도시에서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근 도시의 영향을 받아 지역산업의 특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의 취업인구가 대구광역시로 통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산지역의 산업 종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인접성과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업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발달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이나 대도시에 비해 성장이 약하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성장방안을 제시할 경우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활발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문화재나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이 많아 이를 이용한 각 지자체의 성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경상북도 중소도시 제조업 특성과 변화

경상북도의 제조업은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약 5%, 종사자수는 약 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의 수가 월등히 높으나 종사자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경상북도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체는 음·식료품 제조업체로 전체 제조업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의 종사자수가 1994년 20.9%, 2000년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산업이 활성화된 구미시의 영향으로 보이며, 점차 섬유제품 제조업의 쇠퇴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 경상북도 중소도시 제조업의 특성

경상북도 전체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전국 단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1994년은 담배 제조업체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종사자수가 19.2%로 나타났다. 2000년은 역시 담배제조업체가 1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1차 금속산업의 종사자수가 30.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6년에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체의 비율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2000년과 마찬가지로 제1차 금속산업 종사자수가 20.0%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중 담배 제조업체가 많은 이유는 전국 담배제조업체의 1/3이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제조창 중 가장 규모가 큰 영주제조창이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후 담배제조업의 쇠퇴로 영주시와 김천시만이 담배 제조업을 행하고 있다. 종사자수의 비율에서 제1차 금속산업의 종사자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포항시에 입주하고 있는 POSCO(포항제철)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1 중소도시 제조업의 구성

전국 대비 경상북도의 제조업의 1994년 종사자수는 6.5%, 사업체수의 비율은 5.1%이며 2000년 종사자수는 7.6%, 사업체수의 비율은 5.4%이며 2006년 종사자수는 7.6%, 사업체수의 비율은 5.4%로 나타나고 있다. 각 도시별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율을 2006년 기준으로 보면 경주시는 종사자수는 32%, 사업체수는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천시는 사업체수는 종사자수는 32%,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안동시는 종사자수는 8%, 사업체수는 7%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영주시는 사업체수는 종사자수는 14%, 8% 정도로 나타나고, 영천시는 사업체수는 종사자수는 36%,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종사자수는 13%, 사업체수는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문경시는 종사자수는 13%, 사업체수는 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경산시는 종사자수는 34%, 사업체수의 비중

이 14%로 경산시가 경상북도 8개 중소도시 중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7.6%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8개 중소도시의 제조업 종사자수의 평균비율이 약 23%로 높은 이유는 주변 군부에 비하여 시부의 인프라 구축과 각 시의 제조업체 유치에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마다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제조업의 비율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생각된다.

이 중 사업체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1994~2006년까지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약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로는 1994년 종사자비율은 봉제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이 27.9%, 2000년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수 비율이 20.9%, 2006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수가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료품 가공공장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도시들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료품 가공공장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사자수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의 사업체수 감소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종사자수의 감소로 점차 섬유제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수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체의 증가로 인한 종사자수의 증가로 타 제조업에 비하여 종사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수는 사업체수의 꾸준한 증가는 보이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이루어져 점차 종사자수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1.2 각 시별 제조업의 특성

경상북도 중소도시는 전형적인 농촌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역이 많으며, 지방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의 성격에 맞는 제조업의 발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달하고 있는 제조업에는 그 도시의 특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제조업들이 지역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 생각된다.

경상북도 8개 중소도시의 제조업에서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상위 3개 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하여 가공·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위와 같은 형태의 산업을 주로 행하는 업체가 주로 입주하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섬유제품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의 8개 도시를 특징적으로 묶어보면 인접 대도시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의 비중이 달라지는 경주, 김천, 영천, 경산과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위치하여 음·식료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이 발달한 안동, 영주, 상주, 문경으로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각 도시와 인접한 대도시¹⁾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역마다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1) 경주시의 경우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김천시의 경우 구미시, 영천시와 경산시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체의 영향으로 특화된 산업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인구의 급격한 유출과 전산업의 감소가 특징이며, 주로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지역별 제조업의 변화

1995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는 10개 시 14개 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10개 시 13개 군으로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다. 1994년 행정구역개편이전의 경상북도 제조업의 총종사자수는 240,583명이며, 사업체수는 15,127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음·식료품 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과, 섬유제품 제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의 대부분의 시가 도농통합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경상북도를 북부자원권(안동·영주·문경시, 청송·영양·예천·봉화군), 동부연안권(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중서부내륙권(김천·구미·상주시, 군위·의성군), 남부도시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군)의 4개의 하위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방(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과 남부지방(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경산시)의 경제·산업의 격차의 심화로 경북북부지역은 권역 내 공동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북북부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다.(이도선·윤기찬, 2008)

우선 경상북도 남부 지역의 대도시 인접 중소도시의 경우 인접 대도시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의 특성에도 북부 지역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경주시의 경우 인접한 포항시의 영향으로 제1차 금속산업과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증가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 역시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의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감소와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산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남부지역의 4개 중소도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종사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영천시와 경산시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수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부지역의 중소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으로 위와 같은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개발 정책에서 주로 1차 금속 및 기계 산업, 전기·전자산업, 자동차부품 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이춘근·신두섭, 2004)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중소도시는 농림·어업중심의 산업구조 및 인구 등 지역자원의 역외유출(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등의 약점 요인이 작용하여 남부 지역과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열악한 개발여건과 경쟁력의 약화, 수도권과의 낮은 접근성 등의 위험요인이 더해져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도선·윤기찬, 2008)

제조업에서도 역시 남부 지역의 성장세와는 달리 북부 지역 4개 중소도시 모두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종사자수는 7.8% 감소하였으나, 사업체수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는 남부 지역의 다른 도시들의 약 30%정도에 그치고 있다. 안동시에서도 지역활성화정책으로 농업과 한방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과 문화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점차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영주시는 종사자수는 15.0%, 사업체수는 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품 제조업만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업이 안동시와 마찬가지로 소폭성장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섬유제품 제조업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지역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소백산 웰빙테마파크조성과 유·불문화 체험관광 자원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종사자수는 0.4%, 사업체수는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주시 역시 음·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들은 미미한 성장이나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 제조업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주시의 지역활성화정책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육성과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경시 역시 제조업 종사자수는 35.3%, 사업체수는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음·식료품 종사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증가율이 미약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경상북도 북부 지역 중 가장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미약한 곳이라 생각된다. 문경시의 지역활성화방안은 석탄테마파크 조성 및 명상웰빙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경시에서 제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침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지역활성화방안 역시 제조업중심이 아닌 관광이나 농림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상북도 남부와 북부 지역의 제조업의 격차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제조업의 특성은 경상북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남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증가함에 반해 북부 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에서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역할로 남부 지역의 제조업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북부 지역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에서는 전체적인 약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 남부 지역의 4개 중소도시 역시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발전을 하고 쇠퇴하는 제조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의 4개 중소도시는 제조업 전반적으로 쇠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상북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법적기반을 설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지역 간에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한 하부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V. 연구 결과와 함의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인구는 1970년에서 2005년까지 약 30%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성별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유·소년층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령인구의 수가 남성 노령인구의 약 2배에 이르는 여초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산시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타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상북도 8개 중소도시의 산업변화를 보면 상주시와 문경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도시에서는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으며, 감소한 산업은 광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었다. 또한 경상북도 8개 중소도시에서 지역활성화정책으로 지역관광산업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인근 대도시의 영향에 따라 산업의 특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산업을 보았을 때, 전국, 대도시에 비해 성장은 약하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성장방안이 제시된다면 지역 고유 특색에 맞는 활발한 산업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제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의 중소도시는 크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제조업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주로 남부 지역의 4개 중소도시(경주, 김천, 영천, 경산)에서 제조업은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에 반해 북부 지역의 4개 중소도시(안동, 영주, 상주, 문경)는 제조업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로 음·식료품 제조업이 8개 중소도시 모두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남부 지역의 경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섬유제품 제조업과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쇠퇴양상을 보이며, 그 중 음·식료품 제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또한 전반적으로 남부 지역은 제조업이 성장하였으나, 북부 지역은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방향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남부 지역은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의 확충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북부 지역은 관광 및 지역특산물 가공 등의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경상북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격차는 지역 간 네트워크와 지역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하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증대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건설교통부, 2007, 중소도시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경북북부지역의 혁신역량과 발전전략,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자료
- 권용우 외, 2007, 도시의 이해(개정판), 박영사
- 유환중, 2005, 한국의 도시체계변화와 도시관리 방향, 지리학연구 39(1), 149-159
- 권윤경, 2001, 중·소도시의 산업 구조와 도시 성장-한국의 시를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학위논문
- 김기태·이재은·김재훈·김성기 외, 1998,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 김영수, 2003, 지역 제조업의 중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5), 199-212
- 김용조·이강복, 2006,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새매
- 김 인, 1992,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기능과 도시체계분석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7(3), 47-78
- 김정연, 1999, 중소도시의 기능과 계층구조에 관한 연구-충남지역의 중소도시를 사례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창석, 2000, 충남지역 중소도시의 기능 특징 및 유형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1), 81-95
- 김치호, 1999, 한국의 거시경제 패러다임-실증분석과 정책과제, 한길사
- 남영우, 2007,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 노춘희·김일태 공저, 2004, 개정판 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국토·지역계획론(전정판), 보성각
- 문 석, 1994, 중소도시의 도심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천안시와 온양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설학회논문집 10(7), 135-144
- 성준용, 1990, 한국의 도시시스템, 교학연구사
- 신정철·김의식·김형진, 2004,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오점섭, 2007,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박사학위논문
- 이도선·윤기찬, 2008, 경북북부권의 낙후실태와 광역적 발전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이상율, 2005, “인구의 구조와 분포”, 한국지리지-경상편, 국토지리정보원
- 이상하, 2000, 중소도시의 구조적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임, 1982, 1970년대 한국중소도시의 선별적 성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고용인구를 중심으로-, 지리학 26, 52-70
- 이양재, 2007, 중·소도시와 배후 농촌 지역의 연계 활성화방안, 한국지역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78-102
- 이춘근·신두섭, 2004, 경북지역 지연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임창호, 1988, 중소도시 기능 및 체계분석 : 서남권 중소도시 유형간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 이정록, 2002, 공업단지의 입지와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여천산단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37-155
- 이희연, 2005, 인구학(전면개정5판), 법문사
- 장향은, 영천시 공업의 입지와 연계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지성, 1991,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계층별 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6(2), 41-56
- 조재성, 1994, 지방중소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4개 도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29(3), 81-98
- 통계청, 각 년도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 각 년도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표용태, 1992, 안양시의 공업성장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 논문집 제12권, 285-310
- 하성규·김재익, 199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의 공간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3), 35-55
-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
- 한국도시연구소 편, 1998, 한국도시론, 박영사
- Knox. P·McCarthy. L, 2005, Urbanization : An Introduction to Urban Geography, Prentice Hall
- Hartshorn, T. A.,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Inc. (안재학 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 Ofori-Amoah. B., 2007, Beyond the Metropolis: Urban Geography as if Small Cities Mattere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alance.go.kr/>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
- 경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 경북디지털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gbic.or.kr/>
-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san.go.kr/>
-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 <http://www.gumi.go.kr/>
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cheon.go.kr/>
문경시청 홈페이지 <http://www.gbmj.go.kr/>
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
안동시청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영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yc.go.kr/>
e-cluster 경북 홈페이지 http://gb.e-cluster.net/app/sandan/int_sdn_r02.jsp